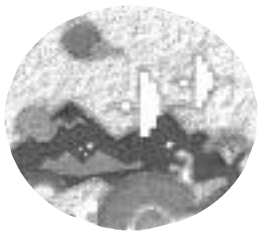

六禮 문답

여섯가지생활예절에관한것이면무엇이든물어보세요.
아는대로대답해드립니다.

族黨과 호칭

●어머니

어머니와의 촌수는 1촌이고 그 공칭公稱은 모母입니다. 낮춰 이르면 어미이고 높이면 어머님 · 모친母親 · 자친慈親 · 자위慈闈 · 가모家母 · 가자家慈 · 군모君母인데 자칭과 타칭他稱으로 함께 써도 무방합니다. 타칭으로만, 즉 남의 어머니를 일컬을 때만 쓸 때는 대부인大夫人 · 모부인 · 모당母堂 · 자당慈堂 · 영당令堂 · 훤당萱堂 · 북당北堂 · 훤자萱慈가 있습니다.

죽으면 비妣인데 이는 높이는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산 사람을 높인답시고 이 자를 썼다간 큰 망발입니다. 선비先妣 · 선자先慈처럼 앞에 선先자를 써도 죽은 어머니가 됩니다. 선비 · 선자는 자타칭으로 다 쓸 수가 있고 죽은 뒤의 낮춤은 망모亡母입니다. 상대의 죽은 어머니에게만 쓰는 호칭은 선모부인 · 선대부인 · 선당先堂 · 선자당 · 선모당 · 선훤先萱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원추리 훤萱자를 쓰는 것은 옛적에 효자가 그 어머니를 위해 집 뒤에 별당別堂을 짓고 좋아하는 원추리 꽃을 심어 드렸다는 데서 연유합니다. 그래서 원추리는 시름과 근심을 잊는다는 망우초忘憂草의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별당이 또 남향집의 뒤꼍 북쪽에 있어서 북당北堂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당이나 훤당이면 노모老母로서 집안 살림을 며느리에게 물리고 별당으로 나앉은 상태이니 아직 노모가 아닌 상대의 어머니를 그렇게 불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훤당이면 효자의 노모를 일컬음이니 누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부른다면 제가 효자를 자칭함이 되어 망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의 어버이를 높여 부르는 춘훤椿萱에는 이처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죽은 어머니를 가장 높여 기리는 이름에 또한 현비顯妣가 있습니다. ‘ 훌륭히 드러나신 돌아간 어머니 ’의 뜻이겠고 제사에서만 쓰는 호칭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높여 기리는 말이라도 산 어머니에게 쓰면 큰 망발이지요. 황비皇妣 또한 같은 급의 존칭인데 ‘ 황고皇考 ’와 같은 연유로 금지된 이래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로서 촌수는 2촌이고 공칭은 조부祖父입니다. 낮추면 할아비이고 높이면 할아버님 · 대부大父 · 왕부王父 · 왕대인王大人 · 왕존王尊에 대춘大椿 등인데 남에게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王이니 황皇이니 하는 것은 다 크다는 뜻의 접두어입니다. 남에게만 쓰는 것에는 앞의 존칭들에 장丈자를 접미어로 붙입니다. 그래서 대부장大父丈 · 왕부장王父丈 등으로 쓰는데 그냥 왕장王丈이라고만 해도 상대의 할아버지를 일컫는 게 됩니다. 내조乃祖가 또 있는데 이는 내부乃父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할아비 · 너의 아비의 뜻이고 그래서 손자에 대한 조부의 자칭이기도 한데, 이것은 존장이 쓰는 경우 상대방 손자에게 그 조부에 대한 타칭이 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조고祖考가 되는데 선조고先祖考 · 왕고王考 · 선조부 · 선왕대인 등이 마찬가지이고 자타칭으로 함께 씁니다. 타칭으로만 쓸 때에는 끝에 장丈자를 붙여도 됩니다. 제사의 축문 등에서 일컫는 호칭은 현조고顯祖考입니다.

●할머니

아버지의 어머니로서 촌수는 2촌이고 공칭은 조모祖母입니다. 낮추면 할미이고 높이면 할머님입니다. 대모大母 · 왕모王母는 자타칭으로 쓸 수 있고 타인에게는 왕대부인王大夫人이라 합니다. 왕자당王慈堂이나 대훤大萱 등은 만들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죽으면 조비祖妣 · 선조비先祖妣인데 자타칭으로 무방합니다. 타칭으로는 선왕대부인先王大夫人이 있습니다. 제사 축문에서는 현조비顯祖妣라 기립니다. 황皇자를 쓴다면 조부에게도 황조고 · 황조모라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원元나라에서 크다는 뜻의 임금 황皇자를 못쓰게 하기까지는 축제문과 신주神主 · 지방紙榜 등에 쓰는 현顯자가 모두 황皇이었습니다. 지금 굳이 이를 되찾아 쓰고자 할 사람도 없겠지만 쓴대도 시비할 사람이 또한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명明나라가 망하고 만주滿洲의 청淸나라 황제가 종주권宗主權을 행사하고부터는 우리나라 선비들이 그에 대한 반발과 저항으로 가례家禮 문서 등에 이 황皇자를 일부러 쓴 예가 있습니다. 청나라를 어떻게든 업신여기고자 그들에게 망한 명나라를 유명有明 · 대명大明에서 오히려 황명皇明으로 쓰던 것과 같은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증조할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이고 할아버지의 아버지이며 촌수는 3촌입니다. 공칭은 증조曾祖 또는 증조부曾祖父이고 증조할아버지란 사실 겹말이 표준어로 된 속어俗語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를 낮추면 증조할아비이고 높이면 증조할아버님이며 증왕부曾王父 · 증대부曾大父는 자타칭으로 쓰고 타칭에만 장丈을 더해 쓸 수 있습니다. 증왕대인曾王大人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증조부쯤 되면 대개 살아 있는 경우가 드물어 죽거나 살았거나 같이 쓰지만 증조고曾祖考라 하면 죽은 뒤에만 쓰게 됩니다. 제사에서는 현증조고顯曾祖考이고 역시 앞에 선先자를 붙여 선증조나 선증조고로 써도 죽은 뒤의 호칭이 되겠습니다.

●증조할머니

아버지의 할머니이고 할아버지의 어머니입니다. 촌수는 3촌이고 통칭은 증조모曾祖母입니다. 낮추면 증조할미이고 높이면 증조할머님입니다. 자타칭으로 증왕모曾王母라 할 수 있고 타칭으로 증왕대부인曾王大夫人이 있습니다. 죽으면 증조비曾祖妣이고 앞에 선先자를 붙여 써도 되며 제사에서는 현증조비顯曾祖妣입니다.

●고조부모高祖父母

고조부高祖父는 고조할아버지의 통칭이고 고조高祖라고도 하며 대개 현세인으로 살아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칭異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조고高祖考라 해도 특별히 죽은 사람의 칭호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이고 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인데 촌수는 4촌이고 낮춤은 거의 없으며 높이면 고조할아버님 정도입니다. 제사에서는 현고조고顯高祖考입니다.

고조모高祖母는 고조할머니의 통칭이고 아버지의 증조할머니요 증조부의 어머니로 칫수는 나로부터 4촌입니다. 죽으면 고조비高祖妣요 제사에서는 현고조비顯高祖妣입니다.

●5대조 이상

고조부 이상은 대수로 쳐서 부릅니다. 고조부터 어버이는 5대조代祖, 또는 5대조부代祖父와 5대조모母, 6대조부모는 6대조, 또는 6대조부와 6대조모로 통칭하고 높임이 5대조고代祖考와 5대조비代祖妣, 6대조고와 6대조비입니다. 제사에서는 그 앞에 현顯자를 접두接頭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수십대 조부모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조始祖가 되면 시조 · 비조鼻祖에 득성조得姓祖 · 예조藝祖라 하기도 합니다. 부를 때 이와 같은 말에 ‘ 할아버지 ’를 접미하여 시조할아버지, 6대조할아버지라 하고 더 높여 일러 고考를 붙이기도 하며, 그 배우자 할머니일 때는 20대조할머니, 6대조할머니 등으로 합니다. ‘ 비妣 ’를 같은 말에 붙여 20대조비, 6대조비라 해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20대조할머니라 하면 자손끼리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 되고, 20대조비라 하면 남에게 칭하는 말로서 고급스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조할아버지나 시조고始祖考가 있으니 시조할머니나 시조비始祖妣도 있을까요? 물론 시조고 · 시조할아버지가 있으니 시조비 · 시조할머니도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 할머니 없이 아버지 · 할아버지만 있어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조할머니니 시조비니 하는 소리를 실제 듣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 일반 백성의 수많은 성씨 시조 가운데는 그 배위의 실존 성씨가 아예 없다 시피합니다. 그래서 이를 쓸 데가 없으니 시조비나 시조할머니라는 말이 생기지를 않은 것같습니다.

5대로부터 이른바 친진親盡이 되어 사당에 신주神主를 모시지 않게 되고 따라서 사시제四時祭 · 기제忌祭 · 차례茶禮 등의 일체 방안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묘제墓祭만 지내게 된 것입니다. 친진親盡은 친함이 다한다는 뜻으로 본인으로부터 위아래로는 4대에 걸치고 횡橫으로는 8촌까지로서 이 안에서만 상복喪服을 입었습니다. 8촌을 또 3종從이라 하거니와 동고조8촌同高祖八寸이라는 말도 이 때문에 생겼습니다. 1년에 한 번 지내는 세일사歲一事로 좋은 날을 골라 정해 놓고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 묘제墓祭를 너나없이 시제時祭 · 시사時事[祀]라 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는 세사歲事가 와오되어 일반화한 말인 것같습니다. 세사歲事[祀]는 세일사歲一事[祀] · 세이사歲二事[祀]가 준 것이니 묘사墓祀나 원묘院廟의 향사享祀를 지칭함에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시제時祭라 하면 사시제四時祭로서 고조까지를 가묘家廟에 모시고 1년 네 차례 각 계절의 중월仲月[가운데 달]에 산통算筒으로 택일하여 지내던 가장 성대한 ‘ 방안제사 였으니,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전혀 다른 제사입니다.

각설하고, 위로 고조부모에서 친함이 다하니 고조부는 촌수로 나에게서 4촌에 해당되지만, 복제服制는 3종인 8촌에 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물·動·靜

권성權誠[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 추밀공파 제간공계 37世]씨는 4월 2일자로 법무법인 대륙大陸의 고문변호사로 취임하였다. 대륙의 본사무소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세안빌딩에, 분사무소는 서초구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있다. 권성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 방송위원회 위원 ·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 청주지방법원장 · 서울행정법원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헌법재판관으로 정년퇴임한 후 미국 델라웨어대 객원교수로 나가 있다가 이번에 귀국하여 이지윤 · 함승희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대륙의 고문변호사가 되었다. 연락처는 02)737 - 2800이다.

권안도權顔都[예비역 육군중장]씨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하였다. 추밀공파 양촌 · 총제공계摠制公系 시조후 38세인 그는 초명이 용도容都이고 1949년 목포에서 나서 육사를 거쳐 미국 센트럴 미시간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으며 야전지휘관으로 육군의 3성장군에 이른 경력 외에도 KIDA국방연구원 무기체계자문위원과 미국 RAND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을 역임한 바 있다.

권영길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두산중공업의 김영춘 박사팀과 함께 일반모터의 1/3 크기에 전기효율을 2% 향상시킨 초전도 모터를 개발했다. 이 모터는 일정 온도 이하에서 강한 자력을 띠는 초전도 자석을 회전시켜 힘을 얻는 장치로 1분에 3600번 회전하면서 1300마력을 낸다. 현재 개발된 모터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고속 회전하는 초전도 자석의 액체헬륨 · 액체질소 등 냉매를 공급하는 기술도 함께 개발했다. 권 박사는 ‘ 2008년쯤 해수를 담수화 하는 설비 등에 적용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과기부 ‘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 ’의 지원을 받았으며, 국내외에 17개 특허를 출원해 놓았다.

권오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버지니아공대 사건과 관련 미국 NCC의 버트 에드거 총무에게 애도 서한을 보냈다. 권 총무는 ‘ 이 사건을 한국학생이 저질렀다는 뉴스에 한국 사회와 교회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다 ’며 ‘ 이 참극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화해와 평화공동체의 건설을 추구해온 한국과 미국 교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 적었다.